전문의약품

글로시타포민서방정 50/500/50mg/100/1000mg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메트포르민염산염) Rev.00

■ **원료약품 및 그 분량** : 1정 중
[글로시타포민서방정50/500밀리그램]
유효성분 :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별규)(시타글립틴으로서50mg) ····· 56.69mg
메트포르민염산염(BP) ····· 500mg
첨가제(타르색소) : 적색이산화철이 들어있는 첨색제, 정색제로함유되어있는 필름코팅제, 정색제로함유되어있는 필름코팅제
기타 첨가제 : 경질무수규산, 라우릴황산나트륨, 미결정셀룰로오스, 부틸레이티드히드록시톨루엔, 스테아르산마그네슘, 탭설드파란색(YL126), 포비돈, 폴리에틸렌글리콜6000, 히프로멜로오스
[글로시타포민서방정50/1000밀리그램]
유효성분 :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별규)(시타글립틴으로서50mg) ····· 56.69mg
메트포르민염산염(BP) ····· 1000mg
첨가제(타르색소) : 적색이산화철이 들어있는 첨색제, 정색제로함유되어있는 필름코팅제, 정색제로함유되어있는 필름코팅제
기타 첨가제 : 경질무수규산, 라우릴황산나트륨, 부틸레이티드히드록시톨루엔, 스테아르산마그네슘, 탭설드파란색(YL126), 포비돈, 폴리에틸렌글리콜6000, 히프로멜로오스
[글로시타포민서방정100/1000밀리그램]
유효성분 :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별규)(시타글립틴으로서100mg) ····· 113.37mg
메트포르민염산염(BP) ····· 1000mg
첨가제(타르색소) : 적색이산화철이 들어있는 첨색제, 정색제로함유되어있는 필름코팅제, 정색제로함유되어있는 필름코팅제
기타 첨가제 : 경질무수규산, 라우릴황산나트륨, 부틸레이티드히드록시톨루엔, 스테아르산마그네슘, 탭설드파란색(YL126), 포비돈, 폴리에틸렌글리콜6000, 히프로멜로오스

■ **성상**
글로시타포민서방정50/500밀리그램: 연한 파랑색의 양면이 볼록한 타원형 서방성 필름코팅정제
글로시타포민서방정50/1000밀리그램: 밝은 녹색의 타원형 서방성 필름코팅정제
글로시타포민서방정100/1000밀리그램: 밝은 파랑색의 양면이 볼록한 타원형 서방성 필름코팅정제

■ **효능·효과**
이 약은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투여가 적절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투여한다.

■ **용법·용량**
혈당뇨요법에 있어서 이 약의 용량은 각 성분의 1일 최대권장용량인 시타글립틴 100 mg과 메트포르민 2000 mg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환자의 현재 치료요법, 유효성, 내약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약은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와 함께 1일 1회 또는 복용 지속시간에 적합하며,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량한다. 서방성 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 약은 쪼개거나 부수거나 갈거나 씹지 말고 삼켜야 한다. 이 약이 불완전하게 용해되어 대변으로 배설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대변으로 배설된 물질에 약물의 주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만약 환자가 이 약이 대변 중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고할 경우, 의료진은 혈당이 적절히 조절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사용상의주의사항 5. 일반적 주의 참조).
이 약 100/1000mg 서방정은 1일 1회, 1회 1정을 복용한다.
이 약 50/500 mg 서방정 또는 50/1000 mg 서방정을 복용하는 환자는 1일 1회, 1회 2정을 동시에 복용합니다.
1. 현재 메트포르민으로 치료받고 있지 않은 환자:
이전 당뇨병 약물치료를 받은 경험이 없으며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시타글립틴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의 초기용량은 1일 용량으로 시타글립틴 100 mg 및 메트포르민 1000 mg 입니다. 초기용량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 메트포르민의 1일 최고 권장용량인 2000 mg 까지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량할 수 있습니다.
시타글립틴의 용량을 감량투여하고 있는 신장애 환자는 이 약으로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상의주의사항 2.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참조).
2. 메트포르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이 약의 권장 초기용량은 1일 용량으로 시타글립틴 100 mg 과 메트포르민 기존 투여 용량입니다.
–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에서 이 약으로 전환하는 환자는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기존 투여 용량은 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메트포르민의 기존 투여 용량으로 속방정을 1일 2회, 1회 850 mg 또는 1000 mg 을 투여하던 환자는 이 약 50/1000 mg 서방정 1일 1회, 1회 2정 용량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의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인슐린의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치아졸리디딘온의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
이 약의 초기용량은 1일 용량으로 시타글립틴 100 mg 이며, 메트포르민의 초기용량은 환자의 혈당치와 기존 투여용량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메트포르민으로 인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용량을 증량합니다.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과 병용투여하였을 때 보고된 것과 유사하였습니다.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병용요법에서 이 약으로 전환하는 환자는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의 기존 투여 용량은 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어린이
1) 임상시험
임상시험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조건 하에서 실시되므로 임상시험에서 관찰된 이상반응 발생률은 다른 약물의 임상시험에서의 비율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환경 하에서 관찰된 비율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위약대조 임상시험에서 메트포르민을 단독투여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시타글립틴 100 mg을 추가 시 내약성이 우수하였습니다. 시타글립틴과 메트포르민을 병용투여한 환자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발생률은 위약과 메트포르민을 병용투여한 환자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하였습니다.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 초기 요법
24주간 실시된 위약 대조 오인설계 임상시험(factorial trial)에서 시타글립틴 50 mg과 속방형 메트포르민 500 mg 또는 1,000 mg을 1일 2회 초기병용 투여 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표 1 과 같습니다.
표 1.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의 초기병용요법: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

	환자수(%)			
	시타글립틴 100 mg 1일 1회	속방형 메트포르민 500 또는 1000 mg씩 1일 2회†	시타글립틴 50 mg씩 1일 2회 + 속방형 메트포르민 500 또는 1000 mg씩 1일 2회†
	176명	179명	364명
설사	7 (4.0)	5 (2.8)	28 (7.7)
상기도감염	9 (5.1)	8 (4.5)	19 (5.2)
두통	5 (2.8)	2 (1.1)	14 (3.8)

† Intent-to-treat 피험자군
‡ 메트포르민 저용량,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의 통합자료.
속방형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의 시타글립틴 추가 병용투여
24주의 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 1일 2회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환자에 시타글립틴 100 mg을 추가 병용투여 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없었습니다.
이상반응에 의한 치료중단은 위약군과 유사하였습니다(시타글립틴 + 속방형 메트포르민 1.9%, 위약 + 속방형 메트포르민 2.5%).
위장관계 이상반응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병용투여한 환자에서 보고된 특정 위장관계 이상반응의 발생빈도는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단독투여 한 환자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하였습니다(표 2 참조).
표 2. 시타글립틴 및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병용투여한 환자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보고된 특정 위장관계 이상반응*

	환자수(%)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 초기요법				속방형 메트포르민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의 시타글립틴과 추가 병용투여	
	위약	시타글립틴 100 mg 1일 1회	속방형 메트포르민 500 또는 1000 mg 씩 1일 2회†	시타글립틴 50 mg씩 1일 2회 + 속방형 메트포르민 500 또는 1000 mg 씩 1일 2회†	위약 + 속방형 메트포르민 ≥1500 mg/일	시타글립틴 100 mg 1일 1회 + 속방형 메트포르민 ≥1500 mg/일
	176명	179명	364명	372명	237명	464명
설사	7 (4.0)	5 (2.8)	28 (7.7)	28 (7.5)	6 (2.5)	11 (2.4)
구역	2 (1.1)	2 (1.1)	20 (5.5)	18 (4.8)	2 (0.8)	6 (1.3)
구토	1 (0.6)	0 (0.0)	2 (0.5)	8 (2.2)	2 (0.8)	5 (1.1)
복통‡	4 (2.3)	6 (3.4)	14 (3.8)	11 (3.0)	9 (3.8)	10 (2.2)

† 초기요법 시행에서 복통은 복부불편감을 포함합니다.
‡ 메트포르민 저용량, 고용량을 투여한 환자의 통합자료
속방형 메트포르민, 설포닐우레아와 시타글립틴의 병용투여
글리메피리드와 속방형 메트포르민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시타글립틴 100 mg 추가 병용투여 위약대조 임상시험(시타글립틴 1618명, 위약 973명)에서 1주주까지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상기도감염(시타글립틴 5.5%, 위약 5.2%)과 비인두염(6.1%, 4.1%)이었습니다. 54주의 결과에서는 상기도감염(시타글립틴 15.5%, 위약 6.2%)과 비인두염(11.0%, 9.3%), 말초부종(8.3%, 5.2%) 및 두통(5.5%, 4.1%)이었습니다.
속방형 메트포르민, 인슐린과 시타글립틴의 병용투여
인정된 용량의 인슐린과 속방형 메트포르민과 혼합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시타글립틴 100 mg 추가 병용투여 위약대조 임상시험(시타글립틴 217명, 위약 233명)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상기도감염(시타글립틴 5.2%, 위약 5.2%)과 비인두염(6.1%, 4.1%)이었습니다. 54주의 결과에서는 상기도감염(시타글립틴 15.5%, 위약 6.2%)과 비인두염(11.0%, 9.3%), 말초부종(8.3%, 5.2%) 및 두통(5.5%, 4.1%)이었습니다.
속방형 메트포르민, 인슐린과 시타글립틴의 병용투여
인정된 용량의 인슐린과 속방형 메트포르민과 혼합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의 시타글립틴 100 mg 추가 병용투여 위약대조 24주 임상시험(시타글립틴 229명, 위약 233명)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은 상기도감염(시타글립틴 5.7%, 위약 5.2%)과 비인두염(6.1%, 4.1%)이었습니다.
저혈당
모든 연구(5개)에서 저혈당 이상반응은 모든 중상이 있었던 저혈당 보고에 근거하였습니다. 혈당측정이 꼭 수반되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대부분의 저혈당 보고(77%)는 혈당측정 시 70 mg/dL 이하였습니다.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병용투여한 군에서 시타글립틴 또는 메트포르민 단독투여군에 비하여 저혈당 보고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표 3.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병용투여한 환자에서 보고된 인슐린과 병용투여한 위약대조 임상시험: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보고된 저혈당의 발생률*

글리메피리드 또는 글리메피리드 및 속방형 메트포르민과의 추가 병용요법 (24주)	시타글립틴 100mg+속방형 메트포르민+글리메피리드(N=116명)	위약+속방형 메트포르민+글리메피리드(N=113명)
총 발생수 (%)	19 (16.4)	1 (0.9)
비율(보고인/환자-년수)†	0.82	0.02
중증의 저혈당 (%)†	0 (0.0)	0 (0.0)
인정된 용량의 인슐린 또는 인정된 용량의 인슐린 및 속방형 메트포르민과의 병용요법 (24주)	시타글립틴 100 mg + 속방형 메트포르민 + 인정된 용량의 인슐린 (N=2393명)	위약 + 속방형 메트포르민 + 인정된 용량의 인슐린 (N=2333명)
총 발생수 (%)	35 (15.3)	19 (8.2)
비율(보고인/환자-년수)†	0.98	0.61
중증의 저혈당 (%)†	1 (0.4)	1(0.4)
용량 조절 중인 인슐린 또는 용량 조절 중인 인슐린 및 속방형 메트포르민과의 병용요법 (24주)	시타글립틴 100 mg + 속방형 메트포르민 + 용량 조절 중인 인슐린 (N=2859명)	위약 + 속방형 메트포르민 + 용량 조절 중인 인슐린 (N=2839명)
총 발생수 (%)	71 (24.9)	107 (37.8)
비율(보고인/환자-년수)†	1.7	3.5
중증의 저혈당 (%)†	8 (2.8)	11 (3.9)

* 저혈당 이상반응은 모든 증상이 있었던 저혈당 보고에 근거하였으며 혈당 측정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Intent to treat 군
† 총 발생수에 근거함 (환 사람이 여러 건을 보고할 수도 있음)
‡ 중증의 저혈당은 의학적 처치를 필요로 하거나 의식이 저하된 수준이거나 의식을 잃거나 발작하는 경우로 정의되었습니다.
저혈당 이상반응의 총 발생빈도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위약군에서 0.6%, 시타글립틴 단독투여군에서 0.6%, 속방형 메트포르민 단독 투여군에서 0.8%, 속방형 메트포르민과 시타글립틴을 병용투여한 군에서 1.6%였습니다. 속방형 메트포르민 단독 투여로 혈당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시타글립틴 추가 병용시 1.3%, 위약 추가 병용시 2.1%였습니다.
로시글리타존 및 속방형 메트포르민과 시타글립틴을 추가 병용투여한 연구에서 3주까지 저혈당의 발생 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2.2%, 위약 투여군에서 0.0%였고, 54주까지는 각각 3.9%와 1.0%였습니다.
활력징후 및 심전도(ECG)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 병용투여로 인하여 활력징후 또는 ECG(QTc 간격 포함)에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췌장염
시타글립틴 100 mg/일 군(N=5429)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조군(활성대조약 또는 위약)(N=4817)에 무작위 배정된 10,246명 환자에 대한 19개 이중맹검 임상시험의 결과를 통합 분석하였을 때, 각 군에서의 급성 췌장염의 발생률은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1 이었습니다(시타글립틴 군에서는 4708 환자-년수 중 4명의 환자에서, 대조군에서는 3942 환자-년수 중 4명의 환자에서 보고됨). TECOS 심혈관계 연구의 임상시험에서, 급성 췌장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췌장염
시타글립틴 100 mg/일 군(N=5429)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조군(활성대조약 또는 위약)(N=4817)에 무작위 배정된 10,246명 환자에 대한 19개 이중맹검 임상시험의 결과를 통합 분석하였을 때, 각 군에서의 급성 췌장염의 발생률은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1 이었습니다(시타글립틴 군에서는 4708 환자-년수 중 4명의 환자에서, 대조군에서는 3942 환자-년수 중 4명의 환자에서 보고됨). TECOS 심혈관계 연구의 임상시험에서, 급성 췌장염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이 약을 투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TECOS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 참조)
시타글립틴
시타글립틴 단독요법에서 인과관계 평가와 관계없이 5% 이상의 빈도로 보고되고 위약보다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 중 가장 빈번히 보고된 것은 비인두염이었습니다.
서방형 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 오합에 서방형 메트포르민 또는 위약을 추가 병용투여한 24주 임상시험에서, 병용투여군에서 가장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5% 초과)이 위약보다 높은 빈도로 보고된 이상반응은 저혈당(서방형 메트포르민 13.7%, 위약 4.9%), 설사(12.5%, 5.6%) 및 구역(6.7%, 4.2%) 이었습니다.
TECOS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 (TECOS: Trial Evaluating Cardiovascular Outcomes with Sitagliptin)
시타글립틴 심혈관계 안전성 임상시험의 ITT(Intent-to-treat)군에 시타글립틴을 매일 100 mg (또는 기저상태에서 eGFR ≥ 30 및 < 50 mL/min/1.73 m²인 경우 매일 50 mg)를 투여받은 환자 7,332명과 위약을 투여받은 환자 7,339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임상시험에서 시타글립틴 또는 위약은 당화혈색소(HbA1c) 및 심혈관계(CV) 위험 인자와 관련된 각각의 일반적인 치료에 추가로 투여했습니다. 시타글립틴 투여 시 주요한 심혈관계 질환이나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을 높이지 않았습니다(11. 전문가를 위한 정보 참 참조). 보고된 중대한 이상반응의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12.7%, 위약 투여군에서 12.4%로 유사하였습니다.
중증의 저혈당의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2.2%(160명,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78), 위약 투여군에서 1.9%(143명, 100 환자-년수(patient-years)당 0.70)로 보고되었습니다. 인슐린 및/또는 설포닐우레아를 투여 받은 환자들 중, 중증의 저혈당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2.7%(138/5,021명), 위약 투여군에서 2.5%(125/4,931명)였고, 인슐린 및/또는 설포닐우레아를 투여받지 않은 환자들 중, 중증의 저혈당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1.0%(22/2,231명), 위약 투여군에서 0.7%(18/2,408명)였습니다. 확진된 급성 췌장염의 발생빈도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0.3%, 위약 투여군에서 0.2%였습니다.
실험실적 검사
시타글립틴
시타글립틴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투여한 군에서 실험실적 이상반응의 발생률은 7.6% 이고, 위약과 속방형 메트포르민을 투여받은 군에서는 8.7% 으로 유사하였습니다. 임상시험에서 요중주성 증가에 기인한 백혈구치의 약간의 증가(약 3개/high power field)와 위 200 cells/μL 처이; 평균기준치 약 6600 cells/μL)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많은 연구에서 나타났으나 모든 연구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며, 임상감사치의 변화가 임상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12주간의 연구에서 위명의 만성 신장애환자와 37명의 중등도의 신장애환자가 시타글립틴 50 mg과 무작위 배정되었으며 같은 정도의 신장애를 가진 14명의 환자는 위약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혈청크레아티닌의 평균(표준오차) 증가는 시타글립틴 투여군에서 0.12 mg/dL(0.04), 위약투여군에서 0.07 mg/dL(0.07)이었습니다. 위약과 비교 시 혈청크레아티닌 증가의 임상적 유의성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메트포르민염산염
29주간의 메트포르민의 대조임상시험에서 약 7%의 환자에서 시험 전에 정상이었던 혈청 비타민 B12값이 임상적 중증 없이 정상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B12-intrinsic factor complex로부터 B12 흡수가 저해됨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는 이러한 감소는 매우 드물게 빈혈을 수반하였으며, 메트포르민 투여 중지 시 비타민 B12를 보충함으로써 빠르게 회복됩니다.
2) 시한 후 이상반응
다음은 시타글립틴의 시판 후 메트포르민 병용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다른 혈당강하제의 병용투여 여부와 관계 없이 추가로 확인된 이상반응입니다. 이 이상반응은 불특정 다수의 인구집단에서 자발적으로 보고된 것이기 때문에, 발생빈도를 신뢰성 있게 예측하거나 약물노출과의 인과관계를 확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발진, 두드러기, 피부혈관염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을 포함한 비리성피부질환을 포함하는 과민반응 [1. 경고, 사타글립틴, 1) 과민반응 및 2. 다음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참 참조]; 간효소치 상승; 치명적/비치명적 출혈성 또는 과사성 췌장염을 포함하는 급성 췌장염 [1. 경고, 사타글립틴, 2) 췌장염 참 참조]; 급성신부전에로 투석을 요함을 포함한 신기능 악화; 상기도 감염; 비인두염; 변비; 구토; 두통; 중증 및 장애를 동반하는 관절통 [5. 일반적 주의, 15) 중증 및 장애를 동반하는 관절통 참 참조]; 수포성 유사천포창 [5. 일반적 주의, 17) 수포성 유사천포창 참 참조]; 근육통; 사지통; 등 통증; 간질성 폐질환; 소양증; 혈소판감소증; 황문근염에 대한 과민반응 [1. 경고, 사타글립틴, 1) 과민반응 및 2. 다음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 참 참조]; 간효소치 상승; 치명적/비치명적 출혈성 또는 과사성 췌장염을 포함하는 급성 췌장염 [1. 경고, 사타글립틴, 2) 췌장염 참 참조]; 급성신부전에로 투석을 요함을 포함한 신기능 악화; 상기도 감염; 비인두염; 변비; 구토; 두통; 중증 및 장애를 동반하는 관절통 [5. 일반적 주의, 15) 중증 및 장애를 동반하는 관절통 참 참조]; 수포성 유사천포창 [5. 일반적 주의, 17) 수포성 유사천포창 참 참조]; 근육통; 사지통; 등 통증; 간질성 폐질환; 소양증; 혈소판감소증; 황문근염에 대한 과민반응

5. **일반적 주의**
1) 유산산증: 유산산증은 드물기는 하나 심각하며, 이 약의 치료중 메트포르민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대사성 합병증입니다.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급성신기능악화, 심폐질환 및 패혈증 상태와 연관되어 있으며 50%가 치명적입니다. 유산산증은 조직의 우이한 관류저하와 저산소증이 있을 때, 당뇨병을 포함하는 별이생리학적 상태와 결부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유산산증은 혈청 젖산 농도 증가(5 mmol/L 초과), 혈중 pH저하(<7.35), 음이온 간의 차이가 늘어나는 전해질 불균형과 젖산/피루브산염의 비가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메트포르민이 유산산증의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경우, 메트포르민의 혈중농도는 일반적으로 5 μg/mL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메트포르민을 투여 받은 환자에 있어서 유산산증의 발현에 대한 보고는 매우 적습니다(연간 환자 1,000명당 약 0.03건). 치명적인 경우는 연간 환자 1,000명당 약 0.015건). 보고된 경우는 주로 많은 내 · 외과적인 문제가 병발한 경우와 많은 약물의 복합투여 등의 상태에서, 내인적 신장질환과 신장 관류저하를 포함하는 신기능이 우이하게 저하된 당뇨병 환자에서 일차적으로 발생된 것입니다(용법 · 용량, 신장애 환자 참 참조). 유산산증의 위험은 신기능 저하의 정도와 환자의 나이에 따라 증가합니다(9. 고령자에 대한 투여, 메트포르민염산염 참 참조).
덧붙여 메트포르민은 저산소증, 탈수, 패혈증과 관련해 중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간기능이 손상된 경우 젖산 배설능력이 우이하므로 저혈당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간질환의 임상적 또는 실험실적 소견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 약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메트포르민이 젖산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 받는 동안 급 · 만성적인 알코올의 과량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유산산증의 시작은 때때로 구별이 어렵고 권태, 근육통, 호흡곤란, 무력증과 복부 통증과 같은 비특이적 증상들을 수반합니다. 산증이 더 심해질 경우 체온저하, 저혈압과 저항성 서맥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자와 의사는 이러한 증상들의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환자는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혈청 전해질, 케톤, 혈당, 혈중 pH, 젖산농도와 이 약의 혈중 농도도 유산산증을 확인하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산증의 의심이 큰 경우에는 젖산의 측정결과를 기대할 것 없이 필요한 처치를 합니다. 특히, 투여 개시 초기 투여량을 증가한 경우에는 유산산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합니다. 치료 초기에 환자가 메트포르민의 특정 용량에서 안정화되면 혼히 위장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후기에 나타나는 위장관 증상은 유산산증이나 다른 심각한 질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을 투여 받은 환자의 공복 시 정맥 혈장의 젖산 농도가 정상상한치 이상이지만 5 mmol/L 이하인 경우, 유산산증이 임박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며, 잘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이나 비만, 지나친 육체활동 또는 긴 체류 다루는데 있어 기술적인 문제와 같은 다른 기전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유산산증은 케톤산증(케톤노증과 케톤혈증)의 증가가 같는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는 당뇨환자에서 의심해야 합니다.
유산산증은 입원치료를 요하는 내과적 응급상황입니다. 이 약을 투여한 환자에서 유산산증이 일어난 경우, 약물을 즉시 투여 중지하고 즉각 일반적인 보조요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약은 투석이 가능하기 때문에환자를 혈역학적 조건에서 170 mL/분에 이르는 청소율, 신중을 정상화하고 축적된 약물을 제거하기 위해 즉각적인 혈액투석이 추천됩니다. 이러한 처치는 때때로 즉각적인 중상 호전과 회복을 가져옵니다.
2) 간장애 환자: 간장애는 유산산증의 잠복 중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약은 임상적 혹은 실험실적으로 간질환이 증거가 있는 환자에게는 피해야 합니다.
3) 신기능 모니터링: 메트포르민과 시타글립틴은 대부분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알려져 있고 메트포르민의 축적과 유산산증의 위험은 신기능의 정에 정도에 따라 증가합니다. 따라서 면령에 따른 정상상한치 이상의 혈청크레아티닌 값는 환자는 이 약을 투여하면 안됩니다.
이 약은 치료 시작 전과, 적어도 매년 신기능 검사를 하고 정상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정상치보다 낮은 크레아티닌 청소율의 환자 및 고령자는 적어도 1년에 2~4회는 신기능 검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크레아티닌 청소율 <45ml/min 또는 사구체 여과율 <45ml/min/1.73m²인 경우 이 약 투여를 중지합니다. 탈수증상(심각한거나 지속적인 구토 또는 설사)이 있거나 신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투여를 시작하는 경우 (고혈압 치료제 또는 이뇨제 및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와 같은) 등 급격한 신기능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급성 상황에서는 즉시 그리고 일시적으로 메트포르민 투여를 중단해야 합니다.
4) 비타민B12치: 29주 동안 지속된 임상시험에서 메트포르민을 투여 받은 환자의 약 7%에서, 임상적 증후 없이, 혈청에 정상 혈청 비타민 B12수치가 정상 이하로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B12-내부인자 복합체로부터 B12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빈혈과의 연관성은 거의 없으며, 메트포르민의 투여 중지나 비타민 B12를 보충함으로써 빠르게 회복됩니다.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는 매년 혈액학적 수치들을 검사해야 하며, 명백한 비정상치는 적절히 평가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비타민 B12나 칼슘 섭취 혹은 흡수가 부적절한 사람들)은 정상 이하로 비타민 B12값이 감소할 소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는 2 ~ 3년 간격으로 정기적인 혈청 비타민 B12측정을 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5) 알코올 섭취: 알코올은 젖산 대사에 대한 이 약이 미치는 영향을 증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을 투여하는 동안 급성 또는 만성적인 알코올의 과량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6) 수술: 수술과정동안은 이 약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하고음식과 수액의 섭취에 제한이 없는 기버운 과정은 제외) 환자의 경구적 섭취가 회복되고 신기능이 정상으로 평가된 후 다시 투여합니다.
7) 조절되진 제2형 당뇨환자의 변화 : 전에 이 약으로 제2형 당뇨병이 잘 조절되었던 환자에서 실험실적 비정상 소견이나 임상적 질환 (특히, 모호하게 잘 정의되지 않는 질환이 발현되면, 즉시 케톤산증이나 유산산증의 발현에 대한 평가해야 합니다. 혈청 전해질, 케톤, 혈당에 대해 검사하고, 필요하다면, 혈중 pH, 젖산, 피루브산염과 메트포르민 농도에 대해서도 검사합니다. 만약 어떠한 형태라도 산증이 나타났다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지하고, 다른 적절하고 올바른 조치를 취합니다.
8) 저혈당 :
시타글립틴
임상시험에서 시타글립틴을 단독투여하거나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메트포르민 또는 치아졸리딘디온)과 병용투여 시 저혈당의 발생빈도는 위약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했습니다. 다른 혈당저하제와의 병용투여가 전형적으로 그렇듯이, 시타글립틴과 인슐린 또는 설포닐우레아를 병용 투여 시 저혈당이 관찰되었습니다. 이상반응 참 참조).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에 의한 저혈당 발생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의 감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용법 · 용량 참 참조).
메트포르민염산염
저혈당은 일반적인 사용 환경 하에서 메트포르민을 단독 투여한 환자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열량 섭취가 불충분한 경우, 격렬한 운동이 열량 섭취로 보충되지 못한 경우나 다른 혈당강하제(설포요소, 인슐린 등) 또는 알코올을 병용 투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특히 고령자, 쇠약환자나 영양 불균형인 환자, 부신이나 뇌하수체 부전 환자 또는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 저혈당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저혈당은 고령자, β-아드레날린 차단 약물을 투여 하는 사람에서는 식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메트포르민 투여에 의해 저혈당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설팅저당을 투여하여, α-글루코시다제 저해제(아카보스, 보글리보스)와의 병용에 의해 저혈당 증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도당을 투여합니다.
9) 신기능이나 메트포르민 대사 또는 배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물과의 병용투여: 신기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유의한 혈액 동태학적 변화를 야기시키거나 시세관 배출로서 배설되는 양이온 약물과 같이 메트포르민의 대사 또는 배설을 저해할 수 있는 약물과의 병용투여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10) 저산소증 상태: 어떤 원인에 의한 심혈관계 쇠혈(쇠), 급성 울혈성심부전, 급성 심근경색과 저산소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다른 조건은 유산산증과 연관되어 있으며 신전 질소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약의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이 약의 투여를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11) 특정 작업의 환자 : 이 약의 섭분 중 메트포르민은 인해 드물게 심한 유산산증, 중증의 지연성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고소작업, 자동차 운전 등에 종사하고 있는 환자에 투여할 경우에는 주의합니다. 또한, 유산산증 및 저혈당에 대한 주의에 대하여 환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히고 철저히 주의시킵니다.
12) 환자등에게 이 약과 다른 치료방법의 잠재적 유익성과 위해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식사요법의 지속, 규칙적인 운동 계획, 정기적인 혈당검사, 당화혈색소, 신기능과 혈액학적 수치에 대한 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 OCT1 억제제(베라파밀 등)와 병용 시 메트포르민의 약효가 저하될 수 있음
– OCT1 유도제(리팜피신 등)와 병용 시 메트포르민의 위장관 흡수 및 약효가 증가될 수 있음
– OCT2 및 MATE 억제제(시메티딘, 돌루테그라비르, 라밀라진, 트리메트로핌, 반데타닙, 이사부코나졸 등)와 병용 시 메트포르민의 신배설을 감소시킬 수 있어 메트포르민의 혈중 농도가 상승할 수 있음
– OCT2, OCT1 동시 억제제(크리조티닙, 올라파립)와 병용 시 메트포르민의 신배설 및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따라서 메트포르민과 이러한 약물을 병용 투여 할 경우 메트포르민의 혈중 농도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특히 신장애 환자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OCT 억제제/유도제는 메트포르민의 약효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메트포르민의 용량 조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적 COX-II(Cyclo-oxygenase) 억제제를 포함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억제제(ACE inhibitors),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angiotensin II receptor antagonists), 이노제제등의 루프 이뇨제) 등은 신기능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어 유산산증의 위험